

第 70 回

12月9日, 成功



- ... 우리協會는 지난 12月9 ...○
- ...日 協會研究室에서 第70回 ...○
- ...發明教室을 開催했다. 毎月 ...○
- ...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...○
- ...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 ...○
- ...도 1백여명이 參席하여 盛況 ...○
- ...을 이루었다. 이날 發明教室 ...○
- ...에서는 (주)홍익 林 周相 ...○

뉴 바인더 시스템 發明人

(주) 홍익 林 周相 전무이사

「작은 것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.」

구멍을 뚫지않고 쉽게 책이나 신문 및 모든 인쇄물을 철할 수 있는 이른바, 뉴 바인더 시스템을 발명한 (주)홍익의 林 周相 전무이사는 그야말로 작은 발명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었다.

기계분야에 남달리 많은 관심을 지닌 林 전무이사는 현대가 자격증시대라는 말을 실감나게 할 정도로, 정비 2급 외에 10여개의 자격증을 소지한 실력과 發明人이다.

그가 發明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벌써 20여년 전의 일이나, 경제적 어려움외에도 수

많은 문제로 인한 發明人의 길을 중도에서 포기했었다.

그러나, 그는 다시 그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, 그 결실로서 뉴 바인더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.

이 뉴 바인더 시스템은 소모품(Clip)과 공구(Driver & Guide)와 준 소모품(Binder, File)이 1 Set로 되어 있고, 12건의 特許出願 중이다.

林 전무이사는 뉴 바인더 시스템의 發明동기를 이렇게 밝혔다.

『신문·잡지·서류 등을 철할 때 매번 송곳이나 펀치로 구멍을 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요. 또 철한 후에도 외관상 깨끗하지도 않고 속에 인쇄된 글자를 못 읽는 폐단이 있었습니다. 이를 개선해보려고 연구하던 중 뉴 바인더 시스템을

發明하게 되었습니다.』

이 뉴 바인더 시스템으로 인해 林 전무이사는 '89 서독 누렌베르크 신발명품전시회에서 은상을 획득하기도 했으며, 심사시 Binding & Filing에서는 세계 최첨단 제품으로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은 불가능하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.

뿐만 아니라, 해외 20여개국 1백여명의 바이어들이 거래상담을 문의해 오는 등 대단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.

『앞으로의 계획은 해외수출을 주력하면서 국내 대기업이나 대량 수요처를 우선하여 국내 일반보급 순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.』

현재, 林 전무이사는 國際特許出願을 준비하며 바쁘게 뛰고있다. <♣>